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 '빛골아리랑'이 4~5일 이틀간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면서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연 배우들이 '새날이 밝아오기를'을 합창하며 열연하고 있는 모습.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빛골아리랑'

희망·감동 안겨준 성공적인 공연

막이 할머니는 한국전쟁 직후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와 연인을 잃고 부역혐의로 갇힌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는다. 감옥을 나와 양동시장 천막아래 국밥집을 시작한 할머니는 고아원에 보내진 아이들을 찾지 못한채 한 아이를 양아들로 데려와 키운다.

시간은 흘러 1980년, 진압군이 된 친아들과 시민군이 된 양아들이 마주한다. 두 아들이 총을 맞던 비극 앞에서 할머니는 탄식과 한이 섞인 노래를 뱉어낸다.

뮤지컬 '빛골아리랑'은 광주의 역사를 담은 5막 1장의 탄탄한 스토리로 100분동안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목란언니', '빨'의 보성출신 김은성 작가의 시나리오에 '모차르트',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잘 알려진 광주 출신 유희성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은 '빛골아리랑'은 완성도 높은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 안무, 음향, 조명, 영상이 조화를

거리로 등장하고 80년 5월 도청 앞 햇불 행진과 대동세상 장면에서는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관객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공연 후 한 시민은 "무료 공연이었지만 관람료를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을 작품이었다"며 "이번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또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이다"고 말했다.

박윤모 예술감독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5월 광주와 서울에서 애플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은 3일 금남로 민주광장의 광장에서 열린 본 행사와 4~5일 주제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던 주제공연에 비해 3일 하루 진행된 본 행사는 아쉬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총부리 맞댄 두 아들... 어머니는恨을 노래했고 관객은 숨죽여 울었다

보완 후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준비 덜된 본행사 무대 아쉬움

소리꾼 아버지를 따라 무등산 고개를 넘어 가던 어린 막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앞서 가던 아버지가 노래를 읊자 어린 막이가 뒤따르며 노래를 부른다. '무등 무등 아리랑 빛골 빛골 아리랑 앞에 가는 아버지 아리랑이 뭇 뜻이 닿아 뒤에 오는 어머니 아리랑이 뭇 뜻이 닿가...'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으로 4일과

5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창작 뮤지컬 '빛골아리랑'(예술감독 박윤모)은 광주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또 5·18 이야기인가' 싶었던 회의적인 생각은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무대인사를 나오는 순간 말끔히 사라졌으며 기립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은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해도 손색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는 그동안 '차스민 광주'(2011년), '님을 위한 행진곡'(2012년), '빛고을 아리랑'(2013년) 등 잇따라 브랜드 공연을 내놓았지만 완성도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다.

다행히 이번 '빛골아리랑'이 전반적인 호평을 받으며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향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광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등산 자락에서 소리꾼의 딸로 태어난

이투며 무대를 한층 빛나게 했다.

강성구씨가 작곡한 22곡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는 공연이 끝나고도 오래도록 귓전에 맴돌았으며 막이 역의 문혜영을 비롯해 전재홍, 김순택, 김유영, 문혜원 등 배우들의 연기와 가창력은 듣는 이들의 귀를 호강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총장로 받거리, 봉제공장, 광주공원 야외소풍 장면 등이 화려한 영상과 함께 불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공연이 시작된 것 인지 연습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듣기 부족한 연주가 이어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축제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속에서도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을 준비했지만, 준비된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 무용 위상 빛났다"

서영무용단 '작침'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안무상 3년 연속... 11월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공연

'무향(舞鄉)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 무용이 전국무용제에서 3년 연속 대통령상과 안무상을 거머쥐었다.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서영무용단은 지난 5일 순천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린 제22회 전국무용제에서 한국 무용 '작침'으로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과 안무상(서영·사진)을 동시 수상했다. 2012



년에는 광주현대무용단의 '자매부'(안무 김미선), 2011년에는 광주로얄발레단의 '티핑 포인트 37.5'(안무상, 남자연기상, 무대미술상)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작품 제목 '작침(鵲枕)'은 까치가 동지를 틀 때 풀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집어넣은 작은 돌맹이를 말한다. '세상사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의 동지에 차곡 차곡 엮을 보물이나 소중한 것들을 만나기 위한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서영씨는 "'작침'은 소중했던, 또 앞으로 소중하게 간직될 무언가를 찾아나서는 과정

을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힘든 여정이 끝나고 고향, 가정으로 돌아가는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안무했습니다. 까치떼가 주요 모티브인데 한국무용으로 새의 움직임 보여줄 경우 자칫 촌스러운 수 있죠. 그래서 모던하고 다이내믹하게 풀어내려했어요. 특히 1막과 3막에서 감랄한 이미지를 줬어요. 까치떼로 변한 군무진을 리드하는 여자 주역무용수의 파워풀한 춤사위가 강한 인상을 남기죠."

서씨는 경연 전 제작진과 함께 공연장인 순천문화회관을 수차례 답사하며 철저히 준

비했다. 타 공연장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안무, 무대세트 등도 세심히 신경썼다.

"전통무용은 배우는 데 끝이 없어요. 지금도 산조, 승무 등을 꾸준히 배우는데 인간문화재인 조흥동 선생님께 배운 '한량무'가 안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남자무용이지만 여성 못지 않은 섬세한 발동작이 일품이죠. 그 동작 등을 활용해 안무를 짰습니다. 서씨는 "광주에도 한국무용을 하는 직업무용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에너지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은



제자들과 연습공간 등을 내준 모교 조선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작침'은 오는 11월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전국 무용제 버전 그대로 광주 시민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5-18낙지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